

“주민참여예산 선심성·민원용 전략 우려”

참여자치 21 분석 결과 “건설·개발부분이 68% 차지”

취지 살리려면 시·자치구 예산 별도 편성해야

주민참여 예산제가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선심성, 민원 해결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은 8일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시민참여예산이 건설과 개발 부분의 68%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참여자치 21이 시민참여 예산을 분석한 결과 편성액 125억원 가운데 복구가 17개 사업에 32억3500만원으로 사업 수와 예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산구가 15개 사업에 21억3500만원이었다. 동구는 9개 사업에 21억원, 서구는 14개 사업에 14억2000만원, 남구는 10개 사업 11억5000만원 순이었다. 광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2개에 20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참여자치 21은 “시민참여 예산 사업별로는 건설과 개발이 중심인 교통건설, 환경생태, 도심재생 분야 사업이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예산운용 방향이 건설 및 개발중심에서

복지, 교육, 인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과 상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편성 결과를 보면 자치구별 나눠먹기식 예산배분, 민원해결 창구로의 활용 등 시책작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운영방향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며, 자치역의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도 이날 상임위 내년 예산심의를 마치고 시민참여예산제가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선심성, 민원해결용으로 전략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첨부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한 78건, 125억원 가운데 광역·기초단체 예산

이 섞여 있는 점을 개선 대상으로 위원회는 지적했다.

일선 기초단체에서 재정여건상 편성하지 못하거나 개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시 예산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취지를 살리려면 시와 자치구의 업무를 구별해 광역·기초단체별로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등 의견을 제시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광주시는 시민참여예산제로 부르고 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내년 광산구에 새 동지

총 사업비 227억 투입

신중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광주시가 신중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등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을 새롭게 건립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 현 청사가 비좁고 낡은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중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 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신 청사는 광산구 삼거동 일대(예정)에 부지 1만7000여㎡, 전체면적 9750㎡, 5개동(棟)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비는 227억원이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현 청사는 1991년 개청한 뒤 입주해 사용하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과 환경, 동물위생 등 3개부(部)와 총무과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86명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재공모에 10명 응모

광주전남연구원 새 원장 공모에 모두 10명이 최종 응모했다.

8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원장 공모 지원을 마감한 결과 전·현직 교수 4명, 국책연구기관·관료 출신 각 2명, 언론·사회단체 관계자 각 1명이 원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3명은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지난 공모에도 응모한 인물이다.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10~11일 1차 서류심사, 2차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후보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보자 1명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와의 합동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원장 임기는 3년이다. 최초 임용 시 차관급 보수를, 이후 매년 성과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광주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통합 후 초대 원장에 오른 허 전 원장은 시·도 의회 등의 압박에 지난달 임명 20일 만에 사퇴했다.

/ 윤현석기자 chadol@



광주기독교교회 민주주의의 회복 촉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20여명이 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 백제실에서 시국기자회견 및 기도회를 열고 있다.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재영 전 전남부지사 물망

5개 부처장관 주내 개각

박근혜 대통령이 급주 중 최소 5개 부처와 장관급 위원장을 교체하는 증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도 부지사를 지낸 박재영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61)이 행정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 물망에 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8일 여론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지난 11월8일 사퇴의사를 밝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후임으로 박 전 부위원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소식에 정통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그동안의 박근혜 대통령 인사스타일로 볼 때 중요직책인 행정부 장관을 호남 출신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지만, 박 대통령이 호남지



역이 갖고 있는 인사 소외에 대한 불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 부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박 전 부위원장은 정치색이 없는 정통 내무관료로 청렴함과 깔끔한 일처리로 공직 선후배들 사이에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담양 출신인 박 전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25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제34대 전남도 행정부지사, 대통령실 행정차장비서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시의회 도시철도 2호선 공법 협의 대립

각각 여론수렴·자문 절차 진행... 오늘 2차 자문회의 개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법을 놓고 광주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시의회가 각각 여론수렴·자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견해를 보이면서 이달 안으로 예고된 시의 최종 선택과 그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일 이후 도시철도 2호선 공법확정을 위한 2차 자문회의를 연다. 시가 제시한 5가지 중 가장 효율적인 공법을 가리려는 자문 절

차로 서울·대구 지하철 전문가, 교수, 언론인,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지난 3일 첫 회의에서는 저심도(低深度) 방식의 ‘원안 중심형’ 선호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트램 도입 등 세 방식을 지지하는 의견도 나왔다.

자문단에 포함된 시의원들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은 수차례 의견수렴 끝에 결정된 공법을 변경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데 우려를 표하며 공법 변경을 위

한 시의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시의원은 자문회의와 시 예산에 대한 의회 심의가 겹치자 의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회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의회는 오는 15일 오전 별도의 정책토론회를 연다. 기존 저심도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건설비 절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광주시가 증액 예상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없어 공법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광주시의 공법 선정에 시의회가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 방식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회 토론회를 시와 의 대립 구도로 보지는 말아달라”며 “의회 토론회에서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방안이 나오면 최종 방안 확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박근혜 시장 재임 당시 ‘지상고가형’에서 강연대 시장 재임 당시 지하로 가는 ‘저심도형’으로 변경·확정된 방식을 운영한 시장의 민선 6기 들어 원점 재검토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가 새롭게 제시한 5가지 방안은 ▲원안 중심형 ▲저심도·트램 조합형 ▲트램 확장형 ▲모노레일 중심형 ▲원안 고수 등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교육청, 예술체험비 축소해 문화체험 부실”

김옥자 광주시의원 주장

광주시교육청이 초(3학년, 5학년)·중학생(2학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체험사업예산을 축소·지원키로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옥자(광산 3) 의원은 8일 내년도 광주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안 심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으로 광주가 아시아문화수도로 거듭나고 있는데,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문화예술 소양을 키우기 위한 문화예술체험비를 점차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들 한 명당



7000원·1만원을 지원해왔다”면서 “하지만 올해엔 초교 5학년만 지원했고, 내년엔 초교 3학년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체험비만 지원할 뿐 교통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급 학교의 예산 부담도 가중되는 등 부실한 문화체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화수도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핵심 인력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해당 예산에 대한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종행기자 gilee@kwangju.co.kr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수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